

세플러⁺원

VOL. 76 / SPRING 2024



Happy Together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롭고 낯선 길이지만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희망의 탄생과 성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SCHAEFFLER

Contents



Schaeffler TruPower Lubricants

냉각수, 그리스, 브레이크 및 파츠 클리너로 구성된 차량 유지 보수와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Happy Together
꿈이 현실로 변하는 With Digital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세플러코리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15일(통권 제76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윤솔지, 김채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Schaeffler Impact



06 Theme Story
시대의 판을 뒤흔들다

10 Schaeffler Story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열쇠

18 Our Hero
스마트팩토리를 선도하는
열정 공동체



Homo Schaeffler



26 Insight
오늘의 과학, 내일의 기술

30 S-Diary
우리 제법 친해졌어요!

32 Curation
AI & I
공존을 위한 네 가지 고민

34 New Face
반짝반짝, 눈이 부신 서울사무소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40 GOD生 Project
찰칵, 일상의 찰나를 기록하다



Schaeffler Ground



46 Schaeffler Club
안산 사업장의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48 Schaeffler ##삼행시 챌린지
세플러코리아 삼행시 백일장

52 Schaeffler Headline

55 Thanks &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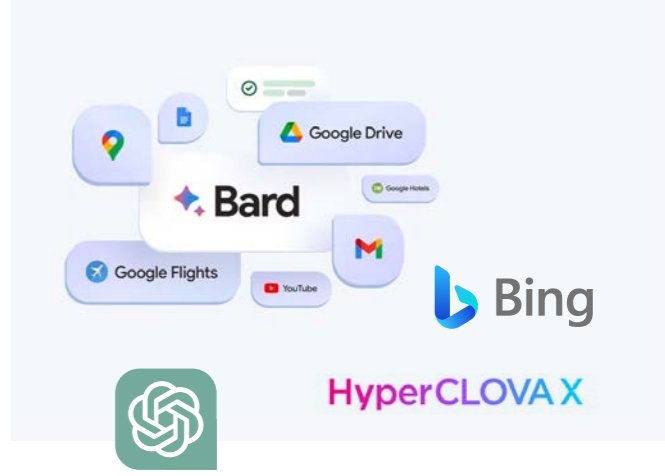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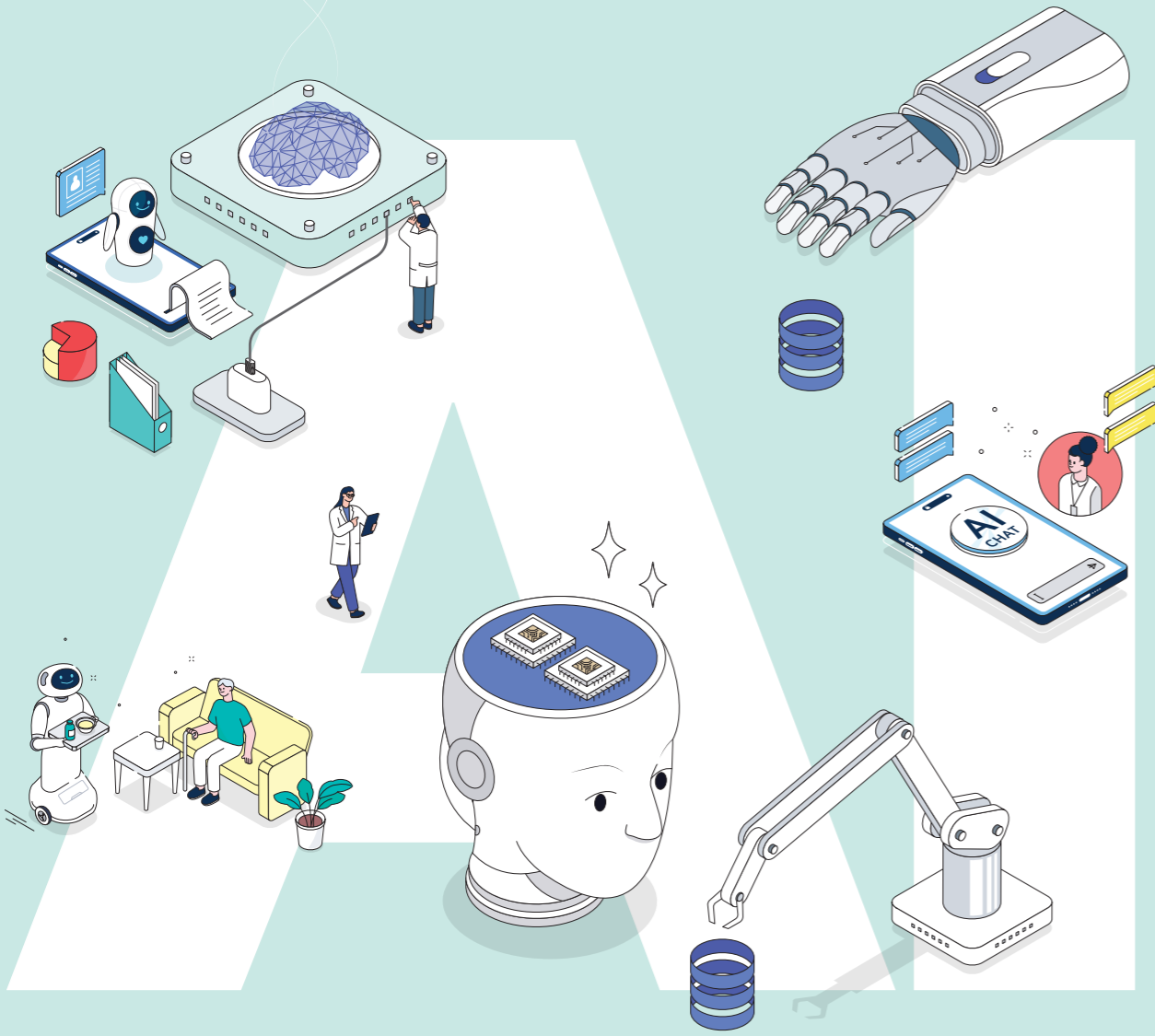


Happy Together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우리 일상의 색깔을 더하는 시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고, 사람과 로봇이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시대의 판을 뒤흔들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AI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다. 화제의 키워드인 만큼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인류에 새로운 혁신을 물고 온 AI 전성시대에 대해 살펴본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시대

인류의 역사마다 새로운 도구의 등장은 역사를 바꾸고, 패권의 향방을 뒤집었다. 또한 인류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몰고 오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인류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단연 AI다.

AI는 인류에 또 한 번의 혁신을 안겨주며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예술, 교육 등 어디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대의 나침반이 됐다.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하기 위해 힘겨루기 바쁘고, 기업들은 매일같이 AI를 내건 신기술과 서비스,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이하 IEEE)는 AI가 올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IEEE가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브라질의 기술 리더 35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이후 기술의 영향: IEEE 글로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예측 및 생성형 AI,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를 포함한 AI가 주요 기술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AI 시장 규모



*자료 마켓앤마켓

인공지능의 화두, 생성형 AI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을 꼽으라면 Open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생성형 AI를 주축으로 AI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 12월 챗GPT와 함께 생성형 AI 시대의 첫 포문을 연 것은 OpenAI다. 질문에 유려한 답변을 내놓는 챗GPT는 그야말로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잇달아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Open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49%를 확보했고, 자체 검색 플랫폼인 Bing(bing)에 OpenAI의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접목해 챗봇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다. 구글 역시 초거대 AI 모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대화형 AI 바드(Bard)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의 네이버와 AI 콘텐츠 봇을 선보인 카카오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AI 기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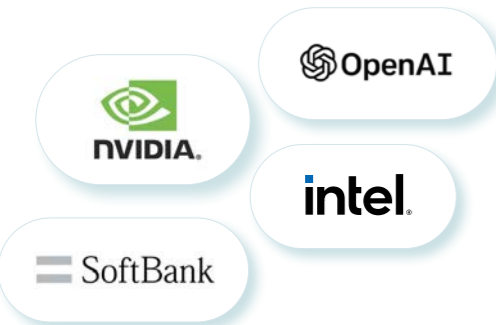
©OpenAI SORA

AI의 핵심, 반도체에 주목한 기업들 🔍

생성형 AI로 촉발된 치열한 경쟁은 AI 반도체 시장으로까지 이어졌다.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OpenAI는 AI칩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자나기'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앞다퉈 AI칩 개발에 뛰어든다. AI 반도체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전례 없는 보조금 지원이다. 일례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반도체 재건의 가치를 내건 일본은 외국 기업에 1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이 한참 뒤쳐져 있던 중국은 최근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AI 🔍

AI 기술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창작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낸다. 최근 OpenAI가 새롭게 발표한 생성형 AI 소라(Sora)는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해석해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 내고, 다른 동영상 AI와는 다른 고퀄리티의 영상을 선보여 고가의 장비나 기술이 없이도 뛰어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었다. 못하는 게 없는 AI는 다양한 산업군에도 활용되고 있다. 반도체, 로봇틱스 같은 첨단 산업뿐 아니라 의료,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도 도입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월 열린 'CES 2024'에서는 AI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 대다수 기업의 미래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AI 약용 우려에도 열풍 이어져 🔍

AI 전성시대임에도 불구하고, AI는 인프라를 구축 중인 초입 단계다. 따라서 아직은 불안전하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AI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3만 여명은 "인공지능 개발 실험을 6개월만이라도 멈추자"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방치할 경우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차별과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 유출과 저작권, 윤리적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AI 이슈 개선과 규제 방안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AI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AI의 열풍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I TREND

마이크로소프트가 꿈은
2024년 AI 트렌드



AI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는 소형언어모델 SLMs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형언어모델(SLMs)이 AI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Parameter, 매개변수)로 이뤄진 소형언어모델은 방대한 양의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된 대형언어모델(LLMs)보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적게 소모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별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활용하는 멀티모달 AI Multi-Modal AI

인간의 인지 능력과 더욱 유사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멀티모달 AI(Multi-Modal AI)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 검색 도구부터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자연어, Bing 검색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이 업로드한 이미지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같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과학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AI Tool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I 기술이 국제적 문제인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질병 등 과학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활용해 기후 변화 완화와 농부들의 효율적인 작업을 목표로 향상된 일기예보 시스템과 탄소 측정기를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도구(Tools for sustainable agriculture)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잡초의 정보를 파악하고 트랙터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등 농부들이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AI챗봇도 개발하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DX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열쇠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 데이비드 로저스는 “디지털 혁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혁명은 전략의 문제다”라고 단언했다. 혁신을 이끌어 내려면 IT 인프라 구조의 변화보다 전략적 사고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업과 창의적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세플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략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은 미래 혁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조하는 디지털 전환은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의 거대한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변화의 파동으로 인식되었고, 전 세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방면의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 디지털 전환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급변하는 환경과 기술 변화,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발 빠르게 읽은 세플러는 일찌감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세플러 로드맵 2025’를 발표하며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전략적 필수 요소로 간주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사물 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과 같은 최첨단 정보 기술이 가져올 수많은 기회와 잠재력을 인식했다.

We pioneer motion



Digitalization Mission

<p>WE Discov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민첩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생태계 파트너 ■ 비즈니스에 있어 유익한 영향 	<p>WE Deliv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적 관점의 디지털화 컨설팅 ■ 신뢰할 수 있고 지능적인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하는 검증된 디지털 솔루션 	<p>WE Deligh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적인 경험을 가진 사용자 ■ 부가가치를 선사하는 이해 관계자 ■ 매력적인 가치를 제안하는 고객
---	--	---

시대 흐름을 읽는 세플러의 대응법

세플러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부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아이디어부터 신제품, 생산 계획, 판매, 관리까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세플러의 디지털 어젠다는 7가지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을 구성하고 안내하기 위한 4가지 디지털화 핵심 전략과 전제 조건이자 촉진제 역할을 하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세플러의 디지털화 핵심 전략 4가지는 순이익부터 매출까지 책임지는 디지털솔루션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차 및 산업기계 고객 지원을 위한 '스마트 제품'과 R&D·생산·영업·마케팅 등 직접 프로세스는 물론 HR·재무 등 간접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앞장서는 '디지털 가치 사슬', 실제 설비와의 사이버 연결 '사이버 물리적 장비', 마지막으로 업무 공간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디지털 작업 공간'이 포함된다.



오택타임



LINH

멕스(AMR)

디지털화 핵심 전략 4가지

Smart Products

스마트 제품 전자 부품, 내장 소프트웨어 또는 내장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메카트로닉 시스템,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및 디지털 서비스를 다루는 자동차 산업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기반 제품 및 서비스

- 스마트하게 연결된 메카트로닉 시스템
-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 디지털 서비스

Digital Value Chain

디지털 가치 사슬 R&D·생산·영업·마케팅 등 직접 프로세스는 물론 HR·재무 등 간접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 각 부문 간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흐름 통합
- 공급업체, 고객 및 그 외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Cyber-physical Equipment

사이버 물리적 장비 공장, 생산 기계, 로봇, 테스트 장비, 유통센터, 운송 차량 등 실제 설비와의 사이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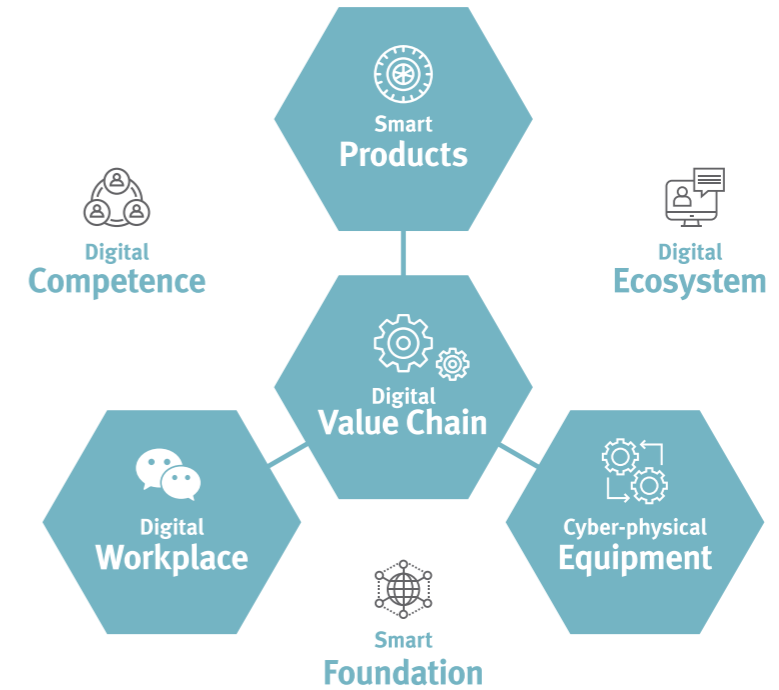
- 공장, 물류창고, 대리점 및 사무실 간의 연결
- 생산 설비 및 로봇 간의 연결
- 시험 설비와 측정 장비의 연결
- 운송 수단 간의 연결

Digital Workplace

디지털 작업 공간 일반직과 전문직의 모든 직업 프로필을 포괄하는 인력 관점의 작업장 및 협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

- 디지털 오피스 & 현장 전문직의 업무 공간
- 디지털 협업 툴

디지털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3가지 요소도 필요하다. 세플러는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요소로 공유된 IT 및 데이터 기술을 갖춘 '디지털 기반'과 조직 전체의 '디지털 역량',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로 정했다. 먼저 공유 IT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 IT 보안, OT 보안을 위한 사이버 보안 표준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조직 전체에서 디지털을 지향하는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 및 공동 창조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과 성과

세플러는 지속적으로 기술 기반 잠재력을 발견, 당사의 이해관계자와 직원 및 고객을 기쁘게 하는 부가가치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및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의 DTC(Digital Transformation Council)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만 이사는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핵심 주제”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도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식 변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Microsoft HoloLens)나 증강현실을 활용한 원격 업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틱스(Robotics), Mixed reality 등의 어드밴스 디지털 테크놀로지(Advanced digital technology) 교육은 물론, 디지털화 관련 기술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플러코리아의 선택과 집중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과 솔루션 업체의 다양화로 인한 한계도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가 워낙 세밀하게 나뉘다 보니 어떤 기술에 집중하고, 어떤 파트너를 통해 디지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플러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및 디지털솔루션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로봇틱스를 통한 자동화와 AI 기반의 검사, 또 AGV·AMR을 이용한 물류 핸들링, 디지털 도구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등 제조분야에 IT(Information Technology)와 OT(Operation Technology)의 융합에도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세플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교육,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갈 예정이다.

Digital Transformation Council



조형만 이사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 함께해 주세요!

조형만 이사는 세플러코리아 IT & Digitalization 분야의 산역사로 불린다. 조형만 이사가 전하는 세플러코리아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자세와 방법에 귀기울여 보자.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6년 대학 졸업 후, 당시 IT 부서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IT 전략 기획, IT 글로벌 코디네이터를 거쳐 세플러코리아의 IT 부서장, 세플러 AP의 CIO,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DTC(Digital Transformation Council)의 담당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사의 화두 중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저는 세플러코리아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 플랫폼 및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도구의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및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디지털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수익으로 더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원천을 제공하니까요. 먼저 디지털화의 두 가지 원동력을 말씀드리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힘을 꼽을 수 있어요.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를 수동으로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완전히 교체하는 절차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물론 문화와 고객 경험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입니다. 이에 세플러는 지속적으로 기술 기반 잠재력을 발견해 당사의 이해관계자와 직원, 그리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부가가치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및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업무에서 특별히 거둔 성과 및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틱스(Robotics), Mixed reality 등의 어드밴스 디지털 테크놀로지(Advanced digital technology)의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디지털화 관련 기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믿음 전파에도 힘을 쏟았어요. 특히 제조분야에 IT(Information Technology)와 OT(Operation Technology)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제조공정의 투명성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로봇틱스를 통한 자동화와 AI 기반의 검사, 또 AGV-AMR을 이용한 물류 핸들링, 디지털 도구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플러코리아가 직면한 디지털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솔루션 업체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기술을 찾고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디지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과 노력도 절실하고요. 이럴 때는 '툭다운' 방식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직원들의 디지털화, AI 자율 제조(Autonomous Manufacturing)가 절박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 수립과 교육, 프로젝트 발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등을 활용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 성과를 낼 것입니다. 특히 AI 자율 제조와 관련된 워크샵을 꾸준히 진행해 이론적인 바탕 및 관련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혁명을 세플러코리아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플러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필연적으로 다가온 현실이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두려움보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Council



세플리코리아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

DTC를 소개합니다!



공정기술 전주
채규홍 팀장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정기술, 세그먼트, Maintenance를 거쳐 공정기술 전주 업무를 맡고 있으며, 30년째 자동화 및 디지털화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기술팀은 원가·Technology·Tool Service·Digitalization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팀원이 디지털화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전주공장을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 어제와 다른 접근 방법이 체질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Council
김수현 마스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창원공장 Digitalization coordinator로서 세플리그룹과 외부에서 개발·사용 중인 각종 디지털 솔루션을 창원공장에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의 업무 성과가 궁금합니다.

창원공장의 PL Round SFM에 디지털 툴을 적용하기 위해 Mendix Low code-No code 플랫폼에서 직접 웹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최근 팀의 현안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공장의 프로세스 최적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dvanced technology를 적용한 생산공정 자동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구현을 통해 제조 프로세스를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기술 안산
주민구 마스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산공장 Digitalization coordinator로서 공장 조직과 Operation IT 기능의 글로벌 플랜트 간 네트워크 중심 담당자 및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의 업무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프로비즈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Digital Andonboard를 수동 조립 라인 5개소에 설치해 현장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코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RSTM 부품의 자동 언로딩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관련 부서 및 모든 직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생산 라인 설치 및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Engineering
R&D Bear. & Ind.
정지원 마스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R&D Industrial A.E. 및 DTC 소속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Industrial Application의 베어링 개발 관련 사양 검토와 수명 해석, 고품 분석, 벤치마킹, 개선 사양 도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TC에서는 휴먼 로봇 Linh 프로젝트 및 AMR DEX 관련 업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의 업무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세플리 싱가포르에서 개발 중인 휴먼 로봇 Linh 프로젝트 관련 국내 조립 및 테스트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세플리 독일에서 진행된 테크놀로지 다이얼로그를 위한 휴먼 로봇의 비디오 촬영에 참여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향후 다양한 형태의 휴먼 로봇이나 AMR 개발 및 프로모션을 위한 전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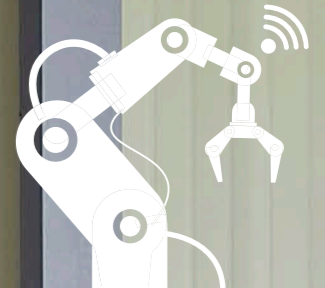
공정기술 전주
박정수 프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주공장 공정기술팀에서 Digitalization & Operation I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obot, AGV 등의 프로젝트, 설비의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Machine Connectivity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의 업무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6분마다 설비에서 발생하는 생산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 제품의 생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MIA 애플리케이션을 5개의 휠 베어링 라인에 설치했습니다.

최근 팀의 현안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Visual inspection Automation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파악, 관련 업체 접촉 등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데이터 요소가 트리거로 작용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일괄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처리되는 Autonomous plant를 목표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역동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선도하는 열정 공동체

디지털 전환은 제4차 산업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전주공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공장 자동화(Digitalization)'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디지털 시스템을 속속 구축하고 있다. 영민하게, 도전적으로 전주공장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DIGITALIZATION



강민우 프로

박태문 명장

박정수 프로

채규홍 팀장

전익영 주임



DIGITALIZATION



from Equipment to People Smart Factory

현재 전주공장은 공장 자동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체감 중이다. 단순히 업무 인력이나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주도하는 전주공장을 만들기 위해 채규홍 팀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오늘도 분주하다.

설비부터 사람까지, 전방위적 체질 개선

진정한 의미의 공장 자동화(Digitalization)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을 넘어 설비와 운영 체계, 인력 등 모두 아우르며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군으로 손꼽히는 제조 산업의 경우, 생산 현장을 전체적으로 혁신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주공장은 공정기술 개발 및 생산 라인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힘을 모으며 공장 자동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1987년 설립된 전주공장은 크게 볼베어링, 휠베어링, 볼스크류 생산팀으로 구성된다. 전주공장의 공장 자동화는 두 가지 중심 축으로 나뉜다. Cobot(협동로봇, Collaborative Robot)과 AGV(무인운반로봇, Automated Guided Vehicle) 프로젝트다. 생산 라인 곳곳에 휠베어링 Cobot 포장, Cobot을 이용한 볼스크류 라인 무인화, Coating Donut Cleaning 등을 구축했다. AGV는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데,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주변 환경을 센싱 하며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현재 전주공장은 휠베어링 외륜&프렌지 Pallet 이동 AGV, G1 AGV, G2 AGV, Ball Delivery AGV 등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개선을 통해 업무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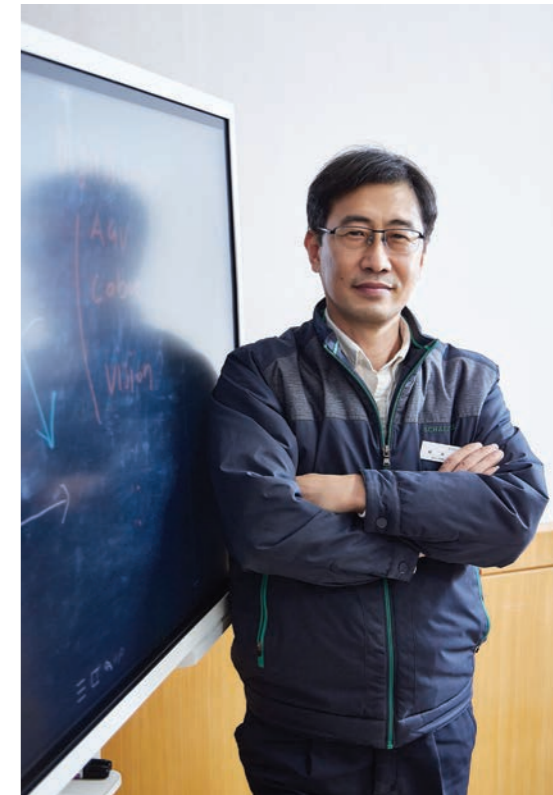
공장 자동화는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물류 이동 시간도 감소했다. 또한 현장 관리가 한층 쉬워졌으며, 근로자의 업무 피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현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오류가 줄어들고 업무의 정확성도 높아졌다. 다양한 변화를 체감한 공정기술 전주 채규홍 팀장은 더욱 선진화된 전주공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는 시대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는 데 활짝 열려 있지요. 향후 또 다른 제품에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구조를 기반으로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인력이나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전주공장을 목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주공장은 도전과 시도를 통해 또 한 번의 진화를 도모하는 중이다. 이 여정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전주공장의 최종 종착지가 기대된다.

소통과 협업으로 제조 혁신을 이끄는 정예요원

전주공장의 공장 자동화 최전방에 자리한 이들은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현장 곳곳에서 따로 또 같이, 제조 혁신을 이끄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다.



공정기술 전주 채규홍 팀장
디지털라이제이션 개발 담당 업무

공장 자동화를 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화를 수용·적용해야 합니다. 처음 도입하는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공장장 및 세그먼트 리더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사용자의 도전적인 자세가 기술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주공장 특유의 조직 문화와 ‘실패를 먼저 생각하지 말자’는 공장장의 철학이 공장 자동화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현장에 적용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 개발업체, 보전팀 등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고안하고, 간이 테스트와 시제품 제작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제품이 구현될 때의 보람과 성취감이 매우 큼니다.

공장 자동화가 사업장 전체에 불러올 시너지를 설명해 주세요.

공장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변화하는 시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Cobot 도입을 통해 직원들은 기존 업무 대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며 신규 비즈니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 구조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공장 운영부터 경쟁력 강화까지 사업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힐베어링 세그먼트 박태문 명장**
힐세그먼트 포장 COBOT 운영 업무

생산 라인에서 공장 자동화로 인한 변화를 생생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조립 라인에 포장 인원이 2명씩 배치돼 수동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Cobot을 활용해 인력 활용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물류 운반 대차의 포장 무게 검증을 저울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하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 또한 포장 입수량 부족이나 부품 누락 등의 실수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과 매일 자동화 회의를 진행할 때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노력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마다 다시 익히고 배울 부분이 많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회사 비전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 어느새 부담감이 책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자동화 업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공정기술 전주 박정수 프로**
디지털라이제이션 및 오퍼레이션 IT 업무

공장 자동화의 핵심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전주공장은 중국이나 유럽, 미주 사업장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진화된 공장입니다. 더욱 발전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대차 안의 Ring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Bin Picking 시스템, 800kg 중량의 대차 이송을 위한 AGV 시스템, 교육과 효과적인 제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AR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화를 짜임새 있게 잘 설계했다고 해도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콘셉트 수립 단계에서부터 작업자 인터뷰를 먼저 진행합니다. 현장 주임님들과 계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요. 이처럼 긴밀히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에 전주공장이 자동화 부문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전주공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비보전 전주 강민우 프로**
AGV 및 CMS 보수 등 전기보전 업무

업무 추진하면서 난항에 부딪힐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주로 AGV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새로 도입한 기술인 데다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비보전팀 팀원분들과 머리를 맞대며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를 설치해 동작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최규정 계장님과 협력해 AGV의 탈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저 또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생산성 향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공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행보에 보탬이 되고자 공장 자동화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추가 도입을 촉진하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전주공장의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 전익영 주임**
볼스크류 생산 라인 총괄 관리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후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볼스크류 생산 라인 같은 경우 20초 혹은 10초에 한 번씩 수행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Cobot이 도입되면서 수작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급, 반출, 반송, 이송 등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Cobot이 수행하는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업무 피로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생산 효율 향상도 이어졌고요. 이전과 비교해 근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장 자동화의 핵심 성과와 더불어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CA 세그먼트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니버설로봇 및 컨베이어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초기 오류가 발생해 고민이 많았는데, 로봇 업체로부터 1박 2일에 걸쳐 교육을 받고, 통화를 자주 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더 높은 꿈이 생겼습니다. 자동화 최적화 및 효율성 향상 부문의 기존 목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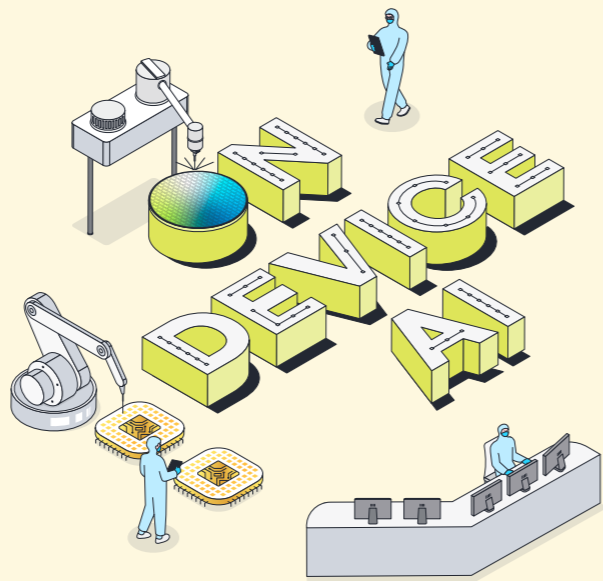


with DIGITAL

경계를 허물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뒤엉킨 21세기는 우리의 감성과 기술이
조화롭게 만나,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순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로 우리 사회는 더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다. AI,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업무 현장에 도입되는 내일의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분야에 도입된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미리 만나본다.

오늘의 과학, 내일의 기술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가능 온디바이스AI

지금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은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고 다시 기기로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온디바이스AI^{On-Device AI}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별도의 네트워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개인 정보 보호, 속도, 오프라인 접근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이미 구글에서는 지난해 10월 생성AI가 내장된 스마트폰 '픽셀 8 프로'를 출시했고, 삼성도 올 1월 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선보이며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갤럭시S24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 실시간 통화 번역 및 실시간 대면 대화 통역, 원격화상 통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가정용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질 것이다.



'오감' 자극하는 새로운 세상 확장현실 XR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실과 연결된 가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지난 1월 애플에서 출시한 '비전 프로'가 화제를 모으며 XR기술에 관심이 집중됐다. XR 기술은 'eXtended Reality'의 약자로 확장현실을 뜻한다. 단순한 디스플레이를 넘어 공간 매핑과 객체 추적 등 더욱 고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헤드셋을 쓰지 않아도 360도로 공간을 만들어 낸다. 현재까지는 안경을 쓰고 확장현실을 즐기는 개념으로, VR과 AR, MR 모두를 통합해 탄생시킨 또 다른 제 3의 현실세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런닝 머신 위를 뛰면서 세계 각국의 여행지를 탐험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띄운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XR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그에 맞는 빠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eXtended Reality XR



운항 효율성에 안전성까지! 자율운항 선박

주목해야 하는 미래기술 중 하나인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 제어하는 선박'이다. 오는 2028년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조선·해운 분야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운항하는 선박에도 자율운항(오토파일럿) 기능은 있지만, 선장과 선원 역할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그에 비해 자율운항 기술은 승조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여주고, 사고 위험도를 현저히 낮춰준다. 또 기존 선박 대비 25% 이상의 운용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어 해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자율운항 기술 중 최적 항로를 최적 속도로 운항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오염 물질을 줄이면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자율운항 선박은 현재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시스템의 자율화가 필요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tonomous ship



Advanced Air Mobility

AAM



하늘을 달리는 자동차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

SF나 영화에서만 보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시대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바로 '미래항공 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기술이 그 주인공이다. 도심 속 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상위 솔루션 개념인 AAM은 단순히 날아다니는 기체 개발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기체 개발은 물론, 향후 하늘도로 교통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소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또 그에 따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AAM은 인류의 이동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데, 단 27분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AAM 기술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발생하는 교통 혼잡, 환경오염, 물류·운송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로 대두되고 있다.



Open-RAN 6G

6G 시대 핵심 기술 오픈랜

다음 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랜(Open-RAN)'은 기지국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네트워크 장비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 개선이 있을 때마다 새 장비로 교체해야 했지만 오픈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오픈랜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돼 있으면서도 보안에 강하다는 것이다. 2030년에 6G가 도입되면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접속 및 서비스의 추가, 삭제가 용이한 유연한 소프트웨어 모듈화도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6G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과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픈랜은 앞으로의 통신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OX 퀴즈로 알아보는 AI 상식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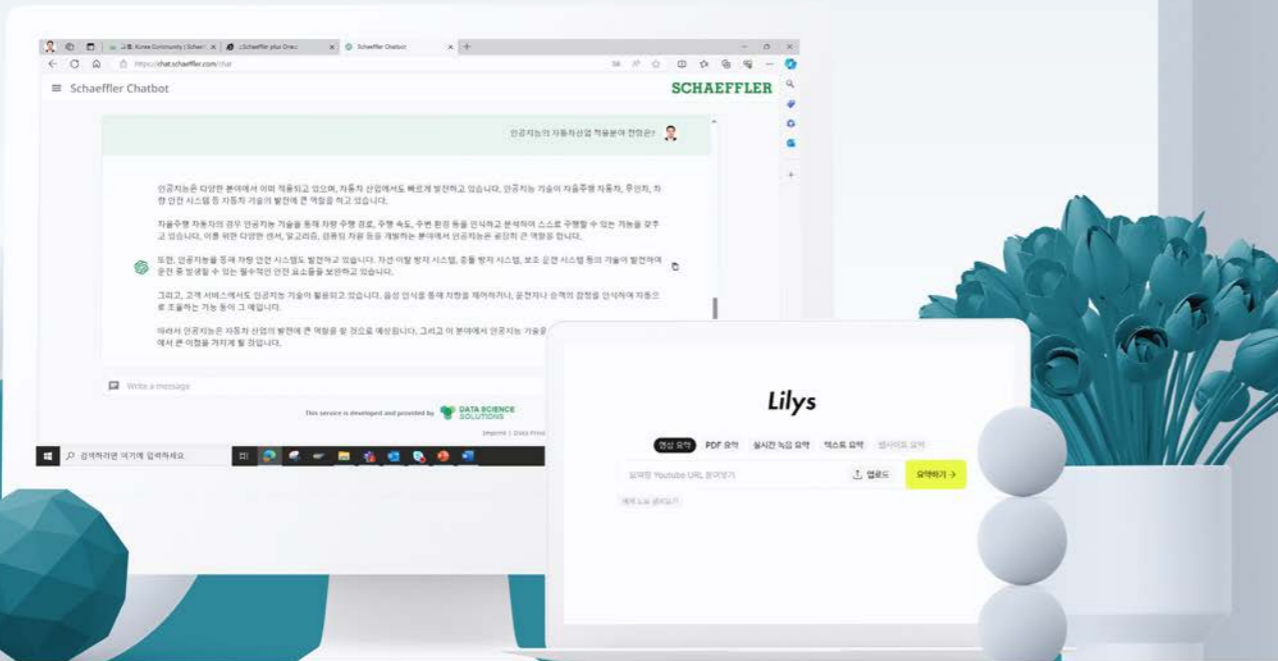
□ □ ×

1. 물리적 존재와 디지털 존재가 연결된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이라 부른다.
2. Open AI는 챗GPT를 개발한 회사다.
3. 인공지능의 한 부분으로,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는 기술은 딥러닝이다.
4. 빅데이터는 흥미로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다
5.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딥러닝은 신경망을 이용하고, 머신러닝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 이미지 또는 소리 데이터를 생성할 때 데이터양을 줄이기 위해 코드화하고 압축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부른다.
7. FAANG는 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을 줄여 부르는 약자다.
8.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9.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보고, 복제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을 오픈소스라고 한다.
10. AI 서비스가 생성한 결과물은 무조건 사실만을 이야기한다.
11.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올바른 행동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12. GPT는 생성적 사전 훈련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로, 챗GPT를 비롯한 많은 NLP 응용 프로그램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언어 모델이다.

^

우리 제법 친해졌어요!

OpenAI의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AI를 열풍이 거세다. 스케줄 관리,
 문서 작성, 통·번역은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생성형AI도
 나올 정도. 일상으로 점점 스미고 있는
 생성형AI를, 제대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이름은 '세플러 챗봇'이야!

<https://chat.schaeffler.com>

유튜브 영상 보기 지루해?

<https://lilys.ai>

공장구매 창원의 Schaeffler Chatbot과 생성형 AI 체험기



**업무뿐 아니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창규 팀장

Schaeffler Chatbot 한글과 영어 지원이 되고, 다양한 정보가 질문에 맞춘 정리된 정보로 제공되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Lilys AI** 영상의 음성성을 자동으로 추출해 스크립트로 정리하는 기능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상 내용을 순식간에 요약·정리할 수 있어서 놀랐고요.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손희창 마스터

Schaeffler Chatbot 간단한 키워드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ilys AI** 영상 요약이 간단히 완료되어서 긴 영상을 볼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하겠어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인상적이었어요**

윤성환 마스터

Schaeffler Chatbot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플러 챗봇을 이용하니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Lilys AI 유튜브를 자주 본다면 영상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기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I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임효준 마스터

Schaeffler Chatbot 이번 기회를 통해 세플러 챗봇을 처음 알게 됐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볼 수 있고, 궁금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Lilys AI 영상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영상 시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기에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Hello, Schaeffler Chatbot

2023년 7월 공개된 Schaeffler Chatbot은 OpenAI GPT 아키텍처 기반의 AI 모델로, 광범위한 질문에 답하고 문제 해결 및 정보 제공,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024년 3월에는 BYOD(Bring-Your-Own-Data) 기능이 추가돼 자신만의 PDF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최적화된 답변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Lilys AI

릴리즈AI는 영상 내용을 요약·노트와 녹취 스크립트, 타임스탬프, 블로그 글 작성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음성 요약 및 PDF 요약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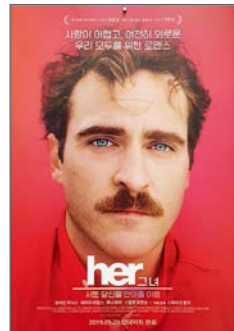
세플러의 AI 사용 규칙

1.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항상 Schaeffler Golden Rules을 고려해야 한다.
2. 안전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만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한다.
3. AI에게 내부 정보, 기밀 정보 또는 개인 정보 등의 정보 제공은 NO! AI를 통해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Public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해당 약관을 숙지해야 한다. 데이터와 결과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AI를 사용한다.
5. 데이터·정보 보호를 위해 생성 AI 사용 시 데이터를 익명화해야 한다.
6. 로봇은 자신이 추정하는 지식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만,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얻은 AI 결과는 모두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AI를 통해 얻은 결과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무방비한 복사·붙여넣기는 지양해야 한다.

AI & I 공존을 위한 네 가지 고민

MOVIE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her



감독 스파이크 존즈
주연 호아킨 피닉스, 스칼릿 조핸슨

2045년, 편지 대필 작가로 일하고 있는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아내와 별거 후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어두운 노래만 들으며 외롭게 살아간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만다라는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고, 둘은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며 조금씩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다. <her>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영화다. 기술이 인간 경험의 깊이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연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한 낙관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전주 주재기자 이세영 프로

MOVIE

AI와 윤리, 어디까지 왔을까? 엑스 마키나 EX MACHINA



감독 알렉스 갈랜드
주연 돌널 글리슨, 오스카 아이삭, 알리시아 비칸데르

<28주 후>, <네버 렛미고> 각본에 참여했던 알렉스 갈랜드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젊은 프로그래머 케일럽(돌널 글리슨)이 유명 기업 CEO 네이션(오스카 아이삭)으로부터 여성 로봇 에이바(알리시아 비칸데르)의 성능 테스트를 부탁받는다. 하지만 칼럽은 슬픈 눈빛을 가진 에이바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엑스 마키나>는 인간과 로봇의 구분,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인간으로서의 윤리 등 여러 문제들을 강렬한 이미지와 충격적인 스토리로 풀어낸다.

“첨단 시각 효과와 강렬한 스토리텔링, 철학적 깊이로 인해 평단의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인간 본성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물론, 기술 발전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주재기자 김유정 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수많은 상상과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를 만나보는 시간!
<세플러+원> 주재기자들이 소개하는 인공지능 관련 영화와 도서, 지금 바로 만나보자.

MOVIE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블레이드 러너 2049 BLADE RUNNER 2049



감독 데니 빌뇌브
주연 라이언 고슬링, 자레드 레토, 실비아 허스

지구의 생태계가 오염되며 상류층은 우주 식민지로 떠나버린 2049년의 LA. 안드로이드 경찰 블레이드 러너 K(라이언 고슬링)는 '리플리컨트'라 불리는 안드로이드들의 쫓으며 숨겨진 진실에 점차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1982년 개봉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30여년 후 이야기를 다룬 속편으로, 원작의 매력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인간과 기계의 존재 근원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비롯해 통찰력과 깊이를 가진 작품성으로 SF영화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중 하나다.

“전작의 명성을 이어갈 만큼 비주얼과 스토리 면에서 큰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기억, 정체성, 현실과 인공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서울 주재기자 김유정 프로

BOOK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천 개의 파랑



글 천선란
출판사 허블, 2020년 08월 19일

SF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예견하는 장르라면 <천 개의 파랑>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희미해지는 존재들을 울곧게 응시하는 소설이다.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미래, 경마장에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와 경주마 '투데이'는 동물과 로봇을 넘는 우정을 나눈다. 장애를 지닌 '은혜', 방황하는 '연재' 등 상처 입고 연약한 인물들이 인간과 종을 넘어선 아름답고 찬란한 회복과 화해의 연대를 담았다.

“동물과 로봇, 그리고 인간의 공존을 그린 SF소설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기계의 발전과 함께하는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 브랜딩 김채정 프로

반짝반짝, 눈이 부신 서울사무소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가고 싱그러운 바람이
봄을 부르듯, 세플러코리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며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바로 열정과 시작의 설렘을
안고 세플러인으로서 첫 발을 디딘 이들
때문인데요.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신규 입사자를 만나봅니다.



최완규 마스터 CHOI WANKYU

KEYWORD
솔직함

솔직한 성격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내는 자리에서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도 아는 척하기 보다 배우려고
하고요. 가식없이 솔직하고,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세플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am

안녕하세요, IT Global Technology Services A/P 최완규 마스터입니다.
세플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서버 및 스토리지 인프라의 관리와 문제 해결, 서버와
스토리지의 제공과 수명 주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고도화를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있고, 컴퓨터공학 대학원에 입학해
관련 분야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진행하는 구조 변경 작업을 지지해 주고 지원해 줄
때였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근거가 명확하다면 지지해 주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챙겨 주는 팀원들 덕분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도움 드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인력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팀워크를 발휘하며 회사의 핵심가치와
사명에 부합하는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매력 포인트는?
IT 관련 교육, 업무에 필요한 Tool
등의 리소스가 풍부해 업무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찾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 사무소의 New-Work 콘셉트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수진 인턴 AHN SOOJIN

KEYWORD
다재다능

어렸을 때부터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중에서도 기타
연주와 요리, 수영, 사진 찍기 등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다재다능한 저의
능력이 세플러코리아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a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인턴 안수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베트남 공장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 환경에서 Microsoft Azure의 OpenAI API를 통해 세플러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봇(Chatbot)을 연동하고 학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이썬을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라 새로운 것들을 빨리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인턴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팀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들이 도와주시고, 서포트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입사 후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항상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플러코리아에는 자기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그
노력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고는
합니다. 너무 멋진 선배님들처럼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혜진 프로 SUN HYEJIN



KEYWORD
웃음

입사 후 '웃는 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원래도 웃음이 많은 편이기는 했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보기 좋다고 해주셨거든요. 세플러코리아 곳곳에 웃음꽃이 피도록 웃음 전파에 매진하겠습니다!

I am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선혜진 프로입니다. 세플러코리아에서 Microsof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Teams를 통한 협업 향상과 Power Platform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365 경력직이지만, 대부분 Teams나 메일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후 Power Platform에 대한 업무 지식과 역량 개발에 매진하며 제 몫을 담당히 해내는 세플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됐던 입사 초반과 달리 지금은 입사 동기는 물론, 선배들과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024년 시무식에서 신입사원으로 소감을 발표하면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업데이트나 변화 속도가 빠른 편이라 항상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지식을 더 쌓아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퇴근 후 루틴은?

최근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스쿼시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공을 잘 치지도 못하고, 자세도 어정쩡하지만 벽에 공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덕인 프로 LEE DEOKIN



KEYWORD
열정

저는 항상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들이나 업무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지요.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I am

반갑습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이덕인 프로입니다. 현재 세플러코리아에 있는 전반적인 IT 자산 및 하드웨어 인프라의 관리와 투자, 조달, 기획 등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계신 IT Admin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전 세플러코리아 사업장에 계신 직원들이 IT에 대한 간극을 최소화하고, 보다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IT 지식 및 역량을 기르기 위해 IT 관련 자격증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IT 관련 뉴스 및 서적들도 주기적으로 스캔하기도 하고,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며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입으로써 항상 배움과 성실함의 태도를 유지하며, 업무에 보다 더 능숙해져서 세플러코리아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원들과 세플러코리아 직원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입사 전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일정한 생활 패턴이 생겨서 좋아요. 평일에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열심히 일한 후 퇴근해 개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앞으로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한 가지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듭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사진을 촬영하는 시대이지만,
필름 카메라 특유의 감성은 결코 '속도'로 만들어낼 수 없다. 전주공장 선후배 5인이 모여
나만의 필름 카메라를 완성하는 과정을 만끽했다. 단 한번의 찰칵, 리허설도
리플레이도 없기에 순간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일깨울 수 있었던 클래스 현장을 만나본다.

찰칵, 일상의 찰나를 기록하다



이대윤 사원



이시원 사원



박건도 사원



이동엽 사원



주진혁 사원





일회용 필름 카메라에 생명을 불어넣다

전주공장 선후배 5인이 '느린 초대'에 응했다. 스마트폰과 PC 모니터 등의 전자기기와는 맞춤하던 일상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신입사원 이동엽 사원(메인베어링 세그먼트), 주진혁 사원(메인베어링 세그먼트), 박건도 사원(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 이시원 사원(설비보전 전주) 그리고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한 이대윤 사원(치공구서비스 전주)이 그 주인공. 근무 현장과 다른 낯선 클래스 풍경에 이대윤 사원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복무 때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깊이 배우는 시간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세대가 다른 신입사원들과 필름 카메라를 매개로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즐거운 경험으로 남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기회가 좀처럼 없던 이시원 사원도 설레긴 마찬가지.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더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해 본 카메라와는 확연히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앞에 놓인 키트 상자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분리한 부품들이 놓여 있다. 이날의 체험은 버려질 뻔한 물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기에 한층 의미를 더한다. 많은 사람이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알고 있지만, 필름과 배터리 외 부품들은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 강의를 진행한 그래퍼스의 강사는 “재활용에는 재이용, 재생이용, 재자원화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용 후 폐기되는 물건을 그대로 이용하는 재이용 방식으로 필름 카메라를 만들어볼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클래스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각 부품과 요소를 하나하나 결합한다. 본체가 완성되면 돌기에 필름의 끝자락을 거는 작업을 통해 필름 풀림을 방지하는 것은 필수. 유격이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필름은 빛에 민감한데, 카메라 내부로 빛이 들어가면 필름에 상이 안 맺히기 때문이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체크한 후, 잠금장치를 열고 드르르르르 필름 레버를 돌려주자 본연의 쓸모를 되찾은 카메라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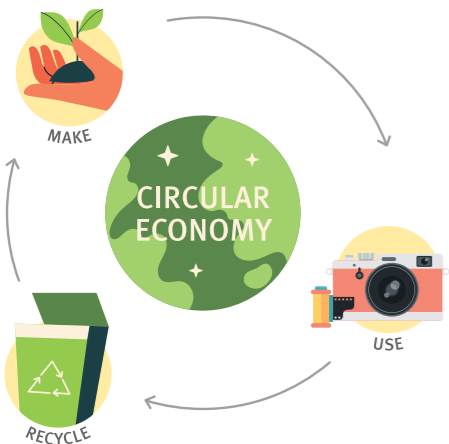
섬세한 손맛으로 즐기는 아날로그 감성을 즐기다

이제는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차례다. 취향과 개성에 맞춰 커버를 꾸미기 시작했다. 마스킹 테이프, 마커 펜, 스티커를 활용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카메라를 만들며 마치 어릴 적 미술 시간으로 돌아간 듯, 경쾌한 노동요와 함께 몰입하는 다섯 사람. 섬세한 손길을 더하는 시간이 평화롭게 다가왔다. 설비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주로 만지던 손에 기분 좋은 온기가 닿는 느낌에 들뜬 마음이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데요. 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 모습을 더했습니다.” 박건도 사원이 일상 속 취미를 표현했다면 주진혁 사원은 희망 사항을 녹여냈다. “반려 고양이와 해외여행이라는 소망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이대윤 사원은 딸이 좋아하는 컬러로 카메라를 꾸렸다. 바쁜 일상 속에 예측된 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들을 골똘히 떠올려보는 이들. 좋아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마음이 끌리는 취향을 천천히 생각하며 나만의 카메라를 만들어갔다.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리사이클에 관해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간단한 작동과 편리함, 아날로그 감성까지 더해져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필름과 배터리 외 부품들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해 지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일회용 필름 카메라 리사이클로 일회용 카메라의 편리함은 그대로!



저마다의 작품이 완성되자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노출계와 셔터, 조리개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혔다. 촬영 시 주의 사항까지 모두 숙지한 후 드디어 실전에 나섰다.

뷰 파인더로 일상 바라보기

청명한 파란 하늘 아래 잔잔한 미풍이 불어왔다. 어느 때보다 화창한 날씨에 다섯 사람은 야외 곳곳을 누비며 사뭇 진지하게 피사체를 고민했다. 이제 막 봉우리를 터뜨린 붉은 꽃, 푸릇푸릇 싹을 틔운 초록 식물, 청량한 하늘의 색감 등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작은 뷰 파인더를 통해 보는 일상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다.

“필름 카메라로 이런 포즈 정도는 답아야죠!” 점프 샷도 놓칠 수 없다. “하나, 둘, 셋 점프!”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열정을 표현한 익살스러운 자세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한편 이대운 사원은 은퇴를 앞둔 선배들을 찾아 나섰다. “직장 생활의 막바지 모습을 추억으로 기록해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의 제안에 쑥스럽지만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선 선배들. 피사체는 저마다 다르지만 촬영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같다. 필름 카메라는 한 번 찍은 것은 되돌리거나 수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기에 더욱 신중해진다. 느릿느릿,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몰입한다. 이동엽 사원은 “평소 스마트폰 큰 화면으로 보던 것과 다르게 자그마한 창을 통해 풍경을 바라보니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달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자연에도 눈길이 가네요. 가까운 주변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촬영한 사진은 현상 작업을 거쳐 이들에게 당도할 예정. 그날을 기억하며 클래스를 마무리했다. 주진혁 사원은 오래 기억될 추억이라고 확신했다.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이 시간이 신입사원 시절의 추억 한 장면으로 선명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입사 후 업무에 적응하느라 모두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요. 오랜만에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상을 리프레시하고 힐링을 누릴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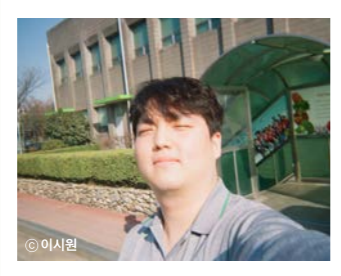
필름 카메라 특유의 무뚝뚝함과 불편함이 주는 뜻밖의 매력을 만끽한 다섯 사람. 누구나 손쉽게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재활용의 가치를 되새긴 시간도 뜻깊은 경험으로 남았다. 특별한 배움을 통해 선후배가 함께한 추억이 직장 생활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 박건도



© 이대운



© 이시원



© 이동엽



© 주진혁

Mini Interview



주진혁 사원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리사이클링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물건을 사용하면서 환경을 위한 행동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커버 꾸미기도, 동기들과의 사진 촬영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대운 사원
차공구서비스 전주

신입사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즐거웠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회사에 열정을 쏟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 깊었어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일상 속에서 리사이클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박건도 사원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

스마트폰 터치에 익숙했던 터라 셔터를 누르고 필름 레버를 돌리는 일이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손으로 무언가를 섬세하게 다루는 경험이 흥미로웠습니다. 동기들 모습을 촬영했는데, 먼 미래에 동기들의 풋풋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시원 사원
설비보전 전주

평소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사용해 볼 기회가 없어서 늘 궁금했거든요. 직접 조립하고 셔터를 누르는 경험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날씨도 유난히 좋아서 감성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엽 사원
메인베어링 세그먼트

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필름 카메라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 아버지께서 쓰시던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이를 종종 사용해 볼까 합니다. 오늘 배운 작동법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필름 사진에 도전하겠습니다!

사내 동호회 백서 1탄

안산 사업장의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동료들 만나면 더 끈끈해지는 법!
 세플러코리아는 직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사내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아두면 정말 쓸모 있는 세플러코리아 각 사업장별
 사내 동호회 백서 1탄. 이번에는 안산 사업장의 동호회를
 만나봅니다. 우리 사업장이 소개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내 동호회 소개는 앞으로도 쭉쭉~ 계속됩니다.

안산 사업장 동호회 완벽 정리!

- 활동 중인 동호회 11개
- 1인당 가입 가능한 동호회 제한 없으나 지원금은 2개만 지급
- 동호회 급여공제 OK
- 지원금 지급 기준 활동 인원 지급
- 지원금 지급 횟수 년 12월, 매달 지급
- 1인당 지원 월 1만원/인



직장생활의 활력소, 안산 사업장 동호회!

01 계절을 만끽하며 달리는 여유 마라톤

인원 _ 16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안산공장
 활동 내용 _ 마라톤
 담당자 _ 김용문 마스터

02 ‘폴짝 폴짝’ 넘다보면 건강도 쑥쑥! 줄넘기

인원 _ 18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안산공장
 활동 내용 _ 줄넘기
 담당자 _ 최춘현 프로

03 등근 축구공처럼 하나되어 달리다, 축구

인원 _ 16명
 모임 빈도수 _ 월 2회
 모임 장소 _ 와동 축구장
 활동 내용 _ 축구
 담당자 _ 왕재현 팀장

04 등산은 선택, 식도락은 필수, 산악

인원 _ 24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관악산 등
 활동 내용 _ 산악
 담당자 _ 김용문 마스터

05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야구

인원 _ 12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성곡야구장
 활동 내용 _ 야구
 담당자 _ 임승철 마스터

06 고독의 매력을 뉘다, 낚시

인원 _ 10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안산공장
 활동 내용 _ 낚시
 담당자 _ 김홍진 사원

07 스매시 한 번에 스트레스 OUT! 배드민턴

인원 _ 14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안산시 배드민턴전용경기장
 활동 내용 _ 배드민턴
 담당자 _ 최동균 사무국장

08 질주본능을 자전거에 싣다, 사이클

인원 _ 32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호수공원 등
 활동 내용 _ 사이클
 담당자 _ 정윤영 마스터

09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추억, 사진

인원 _ 23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안산공장
 활동 내용 _ 사진
 담당자 _ 정경옥 팀리더

10 건강한 친목은 족구가 최고! 족구

인원 _ 28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안산공장
 활동 내용 _ 족구
 담당자 _ 이정환 사원

11 스리쿠션으로 나누는 소통 당구

인원 _ 22명
 모임 빈도수 _ 월 1회
 모임 장소 _ 패밀리당구장
 활동 내용 _ 당구
 담당자 _ 백용상 사원



세플러코리아



세플러+원에서는 2024년 세플러코리아의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하는 삼행시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세플러, 코리아, 베어링, 옵타임 등 세플러코리아와 연관된 4개의 제시어가
꽤 쉽지만은 않았음에도 많은 임직원 분들이 재치와 센스 넘치는 삼행시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영광을 차지한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삼행시 챌린지 참여자

124명

키워드 참여 현황

172개 중복 인정

1위 세플러	51개 29.65%
2위 코리아	48개 27.9%
3위 베어링	44개 25.58%
4위 옵타임	29개 16.86%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세플러코리아 삼행시 챌린지 수상자

최우수상

송인제 _ Masterplanning 전주

우수상

박상호 _ BU 니들 베어링 평가 & 해석

김승준 _ BU 메인 베어링 PG 보울베어링

장려상

김인배 _ BD E-Mobility R&D

오계식 _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권태성 _ Purchasing NPM, Investment & Tools



송인제 _ Masterplanning 전주

이번 백일장을 통해 세플러 '옵타임'을 공부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어요.
광고 느낌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쓴 광고 콘셉트를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세플러를 알아갈 수 있는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옵** 옵션은 하나입니다. 바로 세플러의 '옵타임'을 선택하는 것!
- 타** 타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지 보수 예측 솔루션! 부품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고도화된 설비 예지보전 솔루션!
- 임** 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설치와 사용이 간편한 '옵타임'! 산업현장의 상태 모니터링으로 유지 보수 관련 인력과 비용 절감까지 느껴보십시오!



박상호 _ BU 니들 베어링 평가 & 해석

삼행시로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만으로도 좋았는데, 우수상까지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베어링에 대한 삼행시를 생각하면서 베어링의 특성과 세플러코리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고취되는 듯 했습니다.

- 베** 베스트 넘버 원 세플러코리아
- 어** 어설프게 베어링 만들지 않습니다!
- 링** 링컨 미국 대통령처럼 존경 받는 세플러, 고객이 감동하는 회사입니다.

김승준 _ BU 메인 베어링 PG 보올베어링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수상에 선정돼 기쁘네요. 공대생에 STJ가 뚜렷한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 창작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인문학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 세** 세플러라는 거대한 숲 속에서
- 플** 플라타너스 나무와 같은 가로수가 되어
- 러** 러(너)와 나,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인배 _ BDE-Mobility R&D

상을 바라고 참여한 것은 아닌데, 장려상에 선정되어 기분이 좋네요. 삼행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회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싹이 돋는 봄처럼 세플러코리아에도 항상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 코** 코끝이 시리던 겨울이 지나고
- 리** 리본 모양의 나비들이 깨어나며
- 아** 아름다운 봄이 다시 옵니다



오계식 _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뜻밖의 소식이 얼떨떨하네요. 2024년은 장기근속 입사 30년 된 해인데, 기념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대하겠습니다.

- 베** 베어링 회사에 입사해 몸 담은 지
- 어** 어언 30년이 흘러 되돌아보니
- 링** 링 위에 펼쳐지는 복싱경기처럼 뽀뽀했던 나의 청춘은 한방에 흑! 흘러가버렸네~

권태성 _ Purchasing NPM, Investment & Tools

제시어가 꽤 어려워서 참여에만 만족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장려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 동료들과 삼행시 짓기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회사와 제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베** 베어링은 구동장치의 영원한 벗으로
- 어** 어디서든 회전하는 다른 기계들과
- 링** 링크되어 마찰을 잊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세플러그룹, 레인보우로보틱스·KETI와 AI-이동형 양팔로봇 공동 개발 MOU 체결

지난 1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세플러와 레인보우로보틱스,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AI-이동형 양팔로봇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플러 인더스트리얼 부문 CTO Dr. Michael Pausch를 비롯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 KETI 신희동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플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동형 양팔로봇 관련 감속기 등 핵심 부품 개발 및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KETI는 국제 표준 기술 기반 제조공정에 AI 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운영 AI솔루션 개발 및 완제품 생산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동 개발한 이동형 양팔로봇은 각각 양국 생산 현장에 적용되어 자율 제조의 성공 사례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r. Pausch는 “세플러는 로봇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세플러는 선도적인 글로벌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프로세스의 진화에 기여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주요 산업단지 고객사 대상 'Lifetime Solution Symposium' 개최

세플러코리아는 여수, 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비 고장 방지를 위한 세플러 라이프타임 솔루션 기술을 소개하는 'Lifetime Solution Symposium 2024'를 진행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예지보전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 IoT 솔루션 도입 시 확인 사항, 라이프타임 솔루션 도입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탁임을 활용한 '컨디션 모니터링', '자동 윤활장치'와 베어링 등 기계부품의 탈부착을 쉽게 도와주는 '히터', '제네레이터'와 같은 마운팅 장비 등을 체험 부스에서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이러한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 정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플러코리아, SIMTOS 2024 -AI Factory 테마관 참가

세플러코리아가 4월 1일부터 5일에 걸쳐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SIMTOS 2024'에 참가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SMIC)가 운영하는 AI Factory 테마관에서 디지털 제조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AI 제조 솔루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OPTIME, 로봇틱스 고정밀 감속기, 그리고 에벨릭스의 협동 로봇용 7축 솔루션 시연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자율 제조, Machine on AI 컨퍼런스'에서는 Ms. Anne-Catherine Koch(VP, Digitalization & Operations IT, Schaeffler AP)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세플러의 제조 혁신에 관한 기초강연도 진행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Supplier Day 2024'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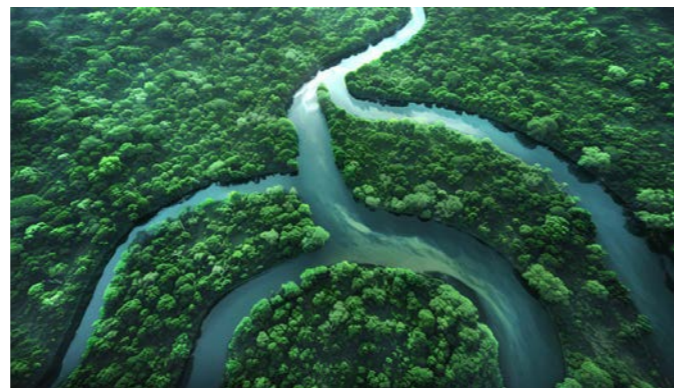
지난 3월 27일, 세플러코리아는 국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Supplier Day 2024'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Empower Partnership for Success'라는 슬로건 아래, 세플러 아시아퍼시픽 및 세플러코리아 주요 임직원을 비롯해 80여 곳의 협력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2030년까지 기후 중립 생산을 달성하고, 2040년까지 기후 중립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그룹의 목표에 맞춰 협력사의 ESG 관련 구매 방향성 정립 및 탈탄소화 실현 등 전략적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신년회 통한 대리점과의 파트너십 강화

세플러코리아의 인더스트리얼 및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부문이 연초 대리점 대표자를 초청한 신년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우수 대리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플러그룹, '2023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세플러그룹이 '2023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후 중립 경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생산 관련 온실가스를 49만 3,000톤 CO2e에서 37만 5,000톤 CO2e로 줄여 전년 대비 약 24% 감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세플러는 2023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서 '기후 변화' 부문 A등급, '수자원 관리' 부문 A-등급을 받아 기업 투명성과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Thanks & Quiz

기자단

서울 박지수 기자, 김유정 기자
 창원 기대환 기자, 손강우 기자
 안산 최진경 기자
 전주 이세영 기자, 이옥균 기자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커뮤니케이션 & 브랜딩
 윤솔지 마스터, 김재정 프로

Quiz 1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5 + 3 = 28 9 + 1 = 810

8 + 6 = 214 5 + 4 = 19

7 + 3 = ?

- ① 120 ② 410 ③ 380 ④ 730

Quiz 2

한 학생이 교장실에 들어가려고 한다. 교장실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학생부실에는 교장실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암호가 있다. 암호의 힌트는 示不小 分不刀 罪不非 日不口 다. 암호는 무엇일까?

- ① 3333 ② 5545 ③ 2841 ④ 4222

지난 호 정답

Quiz 1. ②번 Quiz 2. ③번

17page 정답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참여 방법

 kimcej@schaeffler.com

보내실 때
 코너 제목 / 이름 / 소속 /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응모 마감
 2024년 5월 15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지난 호 당첨자 명단

김규태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이겨레 (BD E-Mobility 영업)
 박하운 (물류 네트워크 관리)
 최우경 (Order Processing B&IS AP)
 이세영 (HR 전주)
 신민호 (설비보전 전주)
 임준선 (사업관리 전주공장)
 오혜성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안경리 (창원물류)
 지철준 (소형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승현 (Customer Service 창원)

*사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We pioneer motion

‘세플러+원’ 사보가 찾아갈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 변동으로 사보 자택 배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김채정 프로(kimcej@schaeffler.com)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세요.

필수 정보

- 성함, 소속, 연락처, 변경할 주소, 우편번호

전송 방법

- kimcej@schaeffler.com로 이메일 전송
- 문자 메시지 이용 시,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 주소 입력 후 전송